

유방암 환자의 民間療法

박진미* · 정복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生命에 대한 人間의 염원은 무한한 것이다. 人間이 자신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生命에 위협을 느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癌의 진단을 받은 후, 혹은 더 이상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할 때 유방암 환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방암 환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려 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人間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韓國의 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民間療法 및 漢方醫療의 간호학에의 도입에 대한 흥미 또한 높아지고 있다(오미정, 1994 ; 주현옥, 1994).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現代醫療와 傳統의 醫療文化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중국의 傳統醫療文化를 연구한 김(1978)은 醫療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과 관행은 文化變動의 한 지표인 동시에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民間療法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傳統의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文化的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을 만나는 동안에 그들이 여러가

지 民間療法을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가지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정복레, 1991). 유방암 환자들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疾病을 극복해야 함과 더불어 암화학요법을 장시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유방암 환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民間療法의 사용이다.

우리나라에서 傳統醫療에 대한 조사 연구들(趙和淑, 1965 ; 宋達玉, 1974 ; 조갑출, 1984, 1985 ; 이경순, 1987 ; 박봉주와 정성숙, 1988 ; 주현옥, 1994 ; 韓明烈, 金淳河, 許程, 1964 ; 최남희, 1978)이 일부 있으나, 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특히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종류가 무엇이며, 왜 사용하게 되는가를 안다면, 유방암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유방암 환자의 健康要求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 간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가 찾는 醫療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인의 질병관리 行爲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에서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을 서술하고 분석하여 유방암 환자에

* 대구 파티마 병원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유방암 환자의 질병관리 行爲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을 서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암 환자가 활용하는 民間療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게 되는 경로는 어떠한가?

셋째,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형태는 어떠한가?

넷째,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이유 및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째, 民間療法이 유방암 환자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醫療의 傳統은 人間文明의 발달과정에서 모았을 때 일상적 傳統과 체계적 傳統으로 나눌 수 있다. 체계적 醫療傳統은 중국의학 남아시아의학 지중해의학 인도의학 등으로 합리적인 이론과 치료양식을 기술한 의학서를 바탕으로 하여 醫療전문집단을 형성한다. 그 대표적인 이론은 體液理論으로서 人間이 健康은 溫冷 혹은 濕乾 등의 대비적 질적상태의 평균에 의해 유지되며, 그 균형이 깨지면서 病이 발생한다. 그리고 인체의 각 부분들간의 배열과 균형은 소우주적 축소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 방식은 人間과 우주환경과의 평형을 회복하는 대명제 속에 포함된다. 일상적 醫療傳統은 일반인과 民間醫療인들이 傳統사회의 일상적 맥락에서 고유하게 발전시켜 온 유형이다. 보통 이것은 ‘民俗醫療’ 혹은 ‘固有醫療’라고 불리우는데 그 특징은 체계적 傳統이 ‘자연주의적’인데 반하여 ‘呪術, 宗教的’이며 ‘道德的’ 맥락에서 疾病이 발생한다고 보는 점이다. 傳統 醫療人들은 한 마을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사람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며 주민과 文化的 傳統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을 형성하지는 않는다(김성례, 1978).

民間療法의 사전적 정의는 ‘民間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오는 病의 치료이다’라고 서술(이희승, 1989)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과 임(1991)은 民間療法이란, 民間에서 흔히 쓰이는 약초를 제때에 캐거나 뜯어 가공하여 가정의 상비약으로 두었다가 病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民間療法을 장기간 疾病과 싸우는 가운데 누적한 보귀한 경험인 바 정확하게 病에 따라 응용하면 病의 치료에 아주 특수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民間療法을 연구 발전된 의학적 치료와는 그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民間療法으로 病을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믿지는 말고 몇 번 써 본 후 효과가 나지 않으면,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民間療法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치료법임을 시사하였다. 안(1989)도 民間療法의 치료법은 의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체험과 지혜와 궁리에 맡겨진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民間療法이 왜 효험이 있는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그저 체험에 의존해서 얻어진 지식을 그대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남겨온 단순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民間療法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그 민족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치료법으로서 자연성초목이 대부분이므로 漢醫學과는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漢醫學에서와 같이 생리 病理 처방 처방이 정연하게 있지는 않고 어느 病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모나 좋냐는 경험에서 나온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문화방송, 1987)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民間療法은 흔히 우리 주위에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일도시주변의 健康개념, 健康行爲, 健康상태를 조사한 전(1988)은 대상자의 질환행위를, 대상자들은 아프다고 우선 내버려두는 경향이 약간 있고 다음이 약국을 이용하며, 병원을 약간 이용하지만 일단 이용하게 되면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民間療法, 식이요법, 활동제한 및 휴식의 방법을 사용함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民間療法을 그들의 질환회복에 이용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여러가지 民間療法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民間療法에 관한 문헌(구본홍, 1990; 다케노우치마사오, 1990; 문화방송, 1987; 안덕균, 1989; 이훈, 1990; 임중과임근, 1991)이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民間療法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일부 지역의 전통 의료 및 민속의료에 대한 연구(趙和淑, 1965; 송달옥, 1974; 김성례, 1978; 韓明烈, 金滄河, 許程, 1964)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民間療法에 관한 연구(이경순, 1987), 가정간호와 연결 지은 民間療法에 대한 조사 등(박봉주와 정성숙, 1988; 조갑출, 1984, 1985)이 있

다. 이중 일부 농촌지역의 民俗醫療 이용을 조사한 송(1974)은 民俗醫療가 1차, 2차, 3차, 및 4차 醫療에서 그 이용상태가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疾病 중 선천성 기형에서는 100%의 대상자가 民俗醫療를 이용하였고, 기타 임신, 분만, 산욕으로 인한 합병증, 사고, 중독의 경우에도 民俗醫療의 이용이 높았으나 신생물 질환에서는 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조(1984, 1985)는 아동들에게 투입되는 民間療法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1차, 2차에 걸친 연구에서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쓰여진 民間療法 및 소재에 대하여 과학성을 규명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암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연구가 드물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많은 癌환자들이 民間療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진(1994)은 유방암 환자들이 초기에는 의학적 결정에 잘 따르지만 수술 후 각종 보조요법을 받으면서 주변의 수많은 지지체계, 각종 서적, 다른 유방암 환자, 및 각종 健康 식품업자로 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취사선택의 과정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자는 완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이 엇갈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의 健康관리 방식을 택하게 된다고 하여 유방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외에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이용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방암 환자가 어떠한 民間療法을 사용하며, 왜 사용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므로 앞으로 民間療法에 관한 연구를 과학성, 합리성에 그 근거를 두고 의미를 파악함은 물론이고 민속학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기초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연구절차

연구절차에 따른 연구대상자 선정,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연구대상자 선정

이 연구의 대상자는 1992년 3월 부터 1994년 8월 까지 K대학 부속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유방절제

술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을 받고 있거나 받은 환자 39명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본인 자신이 유방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기혼이 34명, 독신이 1명, 배우자와 사별한 대상자가 3명, 이혼이 1명이었다. 연령은 31세에서 40세 까지가 13명, 41세에서 50세 까지가 18명, 51세에서 60세 까지가 7명, 60세 이상이 1명이었다. 종양의 단계는 Stage I 이 2명, Stage II 가 31명, Stage III 가 3명, Stage IV 가 3명이었다. 이중 재발이 되어 치료를 다시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는 8명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병실의 간호사 및 주치의의 도움을 받아 대상자를 파악한 후 대상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밝히고 구두승락을 얻은 후 면담을 하였고 면담내용은 녹음기에 녹음한 후 다시 정리하였다.

대상자가 입원 중인 경우는 주로 병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퇴원한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장소는 면담대상자가 편안해 하는 곳으로 하여 주로 병실 및 연구자의 연구실이 이용되었고, 환자가 이미 퇴원을 하여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주로 전화면담을 하였다. 전화면담인 경우는 대상자의 의무기록지를 통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허락을 얻은 후 자료를 수집하고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나 대상자의 의문에 대한 대화를 먼저 나눔으로서 대상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협조를 얻도록 하였다.

평균 대상자와의 면담 횟수는 2회이었으며, 첫 면담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만나거나 전화로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병원 치료외에 어떠한 民間療法을 사용하십니까? 왜 그런 民間療法을 사용하십니까? 누가 그런 民間療法을 소개하였습니까? 그런 民間療法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民間療法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와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때 면담 중의 느낌이나 상황도 같이 기록하여 자료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시작하였고 계속된 분석을 통하여 다음 자료수집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 동안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녹음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면담 중 관찰된 대상자의 반응이나 연구기간 동안 떠오른 연구자의 생각을 메모형식으로 기록하였다.

2. 수집된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개념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비슷한 의미의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작업을 실시하였다.

3. 각 범주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범주 간의 특성을 계속 비교하였다.

4.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주요한 범주들을 선택하여 자료의 체계화 및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 확인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였다.

5. 자료결과와 발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 실례를 직접 인용하였다.

6.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거의 확립된 단계에서 다른 제2의 연구자 한 사람을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본 연구자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동일한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 7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케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을 하는 동안 두 연구자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 제2의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범주와 그 내용에는 차가 없었고 대상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の 종류에서만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즉 제2의 연구결과에서는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경로, 民間療法の 형태,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이유, 동기 및 民間療法の 의의에서는 같은 의미들이 나타났으나 제2의 연구대상자들은 제1의 연구대상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금 태어난 새끼 송아지를 삶아 먹거나, 들냉이를 찢어서 먹거나, 생감을 갈아 먹는 등의 상이한 종류의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의 연구대상자가 속한 병원이 같은 지역내에는 있었으나 다른 병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어떤 집단, 어떤 지역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사용하는 民間療法の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리란 것을 추측케 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연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자 자신을 먼저 소개한 후, 연구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승락을 받았으며, 대상자가 싫어하는 경우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자는 연구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어 무리없이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면담이 허락된 경우 대상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불편하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면담 도중 연구문제 이외의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한 도와 주도록 노력하였다.

IV. 분석에 따른 결과

1. 유방암 환자가 활용하는 民間療法の 종류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の 종류는 크게 뿌리, 버섯, 잎, 나무, 기타 등으로 나눌수 있었다.

뿌리 종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인삼이었고, 인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인삼과 대추, 인삼과 표고버섯, 인삼과 영지버섯 등을 넣어 섞어서 삶아서 그 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버섯종류로는 영지버섯, 그룹버섯, 표고버섯 등을 이용하였으며, 이들을 진쥬, 살구씨, 인삼 등과 섞어서 다려 먹기도 하였다. 잎 종류로는 케일, 다래몽을 이용하였으며, 나무종류로는 느릅나무, 수수떡나무, 홀잎나무, 참비듬나무, 겨우살이나무 등을 다려서 사용하였다. 특히 느릅나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번씩은 모두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느릅나무를 다려 놓고 차처럼 먹는다’면서 장기 복용하는 환자도 있었다.

기타 유방암 환자들은 울무, 알로에, 인삼엑기스, 아로마틴 골드, 스쿠알렌, 녹차 등의 상품화된 식품을 먹거나 특수하게 애기동초, 물벗, 족재비 삶은 물, 자신의 소변, 굴뚝이를 볶아서 삶아 먹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체질 개선으로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는 이상의 民間療法과 동시에 체질개선을 위하여 식이요법을 병행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면서 육식이 좋지 않다 하여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며, 먹을 때는 기름기를 걸러 내고 먹고 있었다. 또한 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현미밥을 짓거나, 갖가지 종류의 채소나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려 하였다. 환자들은 자연식이 좋다 하여 음식에 전혀 소미료를 사용하지

시 않거나, 음식의 당을 줄이거나,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하였고, 완전히 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民間療法을 하게 되는 경로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게 되는 경로는 같은 유방암 환자들끼리의 정보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장소는 주로 병원이 이용되었다. 그외 가족, 친척, 친구들 및 제(契)모임에서 民間療法을 소개받기도 하고 기타 다른 환자의 방문객으로부터 혹은 신문, 잡지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나 의사나 학의사가 民間療法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즉, 유방암 환자에게는 주위에서 수많은 民間療法을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모든 그러한 民間療法들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환자나 환자의 가족은 民間療法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형태

유방암 환자들은 일차적으로 병원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았으나 병원치료 동안이나 병원치료가 끝난 이후,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고 하면 民間療法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유방암 환자가 암을 진단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치료 후, 환자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저망하는 대도 모든 지표를 했으니 나올 것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民間療法이다. 이 경우 유방암 환자는 癌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하여 몸에 좋거나, 癌의 예방에 좋다고 하는 民間療法 및 체질개선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 民間療法에 크게 의지하거나 비중을 두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다른 하나는 癌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난 다음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시도하게 되는 民間療法이다.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하여 퇴원한 환자는 이제 民間療法에 매어 달릴 수 밖에 없으므로 여러가지의 극히 다양하고도 복잡한 民間療法을 사용하였다. 어떤 환자는 '나는 5년 동안 느릅나무나 느릅나무에 여러가지 나른 약초를 섞어서 삶아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2개월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먹고 병원도 가요' 하였다.

유방암 환자들이 民間療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이유로는, 병원의 치료와 같이 사용하면 병원치료에 해가 될 것 같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되거나, 귀찮아서, 체질에 맞지 않거나 民間療法의 효과를 의심하는 경우이다.

병원치료에 해가 될 것 같다는 경우는, '병원치료를 할 때에는 다른 치료를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 '약 먹을 때는 다른 것은 피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안 먹었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주위에서 권하면 民間療法을 사용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몸을 생각해서 하면 좋는데 여건이 안 돌아가서', '비싸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民間療法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는, '먹기 싫어서', '준비할 수가 없어서', '덜 급해서', '울무가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이 세울러서 그러는지 안급해서 그러는지 해 놓고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있다', '누가 해주면 또 먹지만 그런 사람도 없어서 안한다', '나는 모질지가 못해서 못먹었다. 느릅나무를 시어 머니가 해 오셨는데 버리거나 남편을 주거나 하고 나는 안먹었다', 혹은 '된장국 같은 것도 끓여 먹으면 좋는데, 나하나 먹으려고 끓이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먹고... 애들도 싫어하고... 나는 그저 날 된장에 찢고추, 오이 같은 것을 찍어 먹고 있다'고 하였다. 정성이 없고 끈기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환자는 '먹으려고 사 놓기도 안먹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것이었다. 즉 生命의 위협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발된 환자들이 어떠한 民間療法이든 癌에 좋다고 하는 모든 民間療法을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었다.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먹으니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위장장애가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들은 民間療法을 사용하지 않다가도 신체적으로 이상을 느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암에 좋더라 하는 말을 듣거나, 누가 무엇을 먹고 효과가 있어 아직 살아 있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다시 民間療法을 시작하였다.

4.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이유 및 동기

환자들이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癌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이었으며, 그외 '癌을 치료하기 위하여', '癌의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이었다. 즉 유방암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암에 좋다'고 하니

까, ‘그것을 먹었더니 효파가 있었고 나았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혹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먹어야 산다고 가족들이 이야기 하므로 民間療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환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떤 民間療法을 사용하였더니 病이 나았더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들은 이러한 民間療法이 실제로 癌의 재발을 막을 수 있거나, 民間療法으로 癌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있지 않았다. 즉,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실제로 民間療法이 환자의 病을 낮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효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환자들은 약의 효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좋을 수도 있었겠지요’하는 막연한 대답을 하였다. 그들은 효험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먹어 보는 것이다’라고 대답 하였다. 즉, 많은 환자들이 民間療法을 사용하고는 있었으나 그 효력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며 증명되고 있지도 않았다.

5. 民間療法の 의의

1) 불안감 제거

民間療法은 유방암 환자의 불안감 제거와 정신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유방암 환자는 民間療法을 사용함으로써 재발의 공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삼이 좋다고 편하단 삼을 먹는데, 한참 먹다가 안먹고 한다. 덜 급해졌는지... 그러다가 어느날 몸이 좀 그러면 또 먹게 된다’ 혹은 ‘걱정이 되어서 먹는 것이지요’ 한다. 환자들은 불안할때, 病의 재발이 두려울때, 신체적으로 健康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民間療法을 시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방암 환자의 疾病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며, 불확실한 자신의 生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므로서 불안감을 제거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환자에 대한 가족의 애정 표현

유방암 환자의 남편이나 가족, 친척들은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니 그 방법의 하나로 民間療法을 소개하거나 사용하도록 권하였다. 이것은 환자의 남편,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타내는 마음의 표현이나 애정의 표현이라 볼 수 있었다. 환자의 남편, 가족 및 친지들

은 환자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무슨 民間療法이 좋더라 하면서 관심의 표현이나 애정표현의 한 방식으로 환자에게 民間療法에 대하여 소개하거나 환자를 위해 구입하여 환자가 복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시어머니가 박이 좋다고 박을 15 덩어리나 사다 놓고 계속 박나물로 반찬을 해준다. 지꾸 먹으니 먹기 싫으나 그 경성을 생각해서 먹는데 요즈음은 즈름 내어 먹는다’ 혹은 ‘사다 주니 먹는다’고 하였다. 이때 환자는 가족이 환자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기뻐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이러한 상황을 자랑하였다.

V. 논 의

모든 人間은 특별한 文化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 文化的 信念이 疾病과 健康에 대한 개인의 行爲, 사고, 반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Martinez & Martin, 1966)가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문화권 내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간호를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방매륜, 1983; 이정순, 1987; 김거분, 1990; 정복래, 1991; 吳美貞, 1994; 전명희, 1994). Leininger (1987)는 문화 개념을 간호학에 도입하여 횡문화간호이론(Transcultural Nursing Theory)을 설명하고, 그 연구방법으로 민족과학적 접근법(Ethnoscience Method)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健康 9원의 필수적인 목적이 일차적으로 대상자가 가진 文化的 價値, 우선 순위, 文化的 집단의 특성, 그리고 그들을 도울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人間을 돕는 간호가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文化的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McKenzie와 Chrisman(1977)은 필리핀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民間療法과 민족적 健康信念과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Kulbok과 Baldwin(1992)도 健康증진을 위한 예방적 健康行爲에 대한 설명에서 健康증진 行爲를 단순히 개인의 健康行爲 집합이나 형태 그 이상의 복합적인 영역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것은 각 行爲의 긍정적 부정적가치감, 文化的 인식, 성의 차이, 성장발달 과정에서의 인식과 行爲의 지각된 목적 등과 연관이 됨을 설명하여 健康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인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Powers (1982)도 미국계 흑인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의미를 밝히면서 民間療法의 傳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며 이는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의 역동적 환경과 반응하여 계속하여 변화한다고 하였다.

결국 疾病과 健康에 대한 行爲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며 그것은 사회文化的 유산과 연관이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文化的 傳統 속에서 癌을 진단 받은 환자는 癌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질병관리 行爲를 하게 되는가?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은 인삼, 인삼과 대추, 인삼과 표고버섯, 인삼과 영지버섯, 그릅버섯, 표고버섯, 신갈, 살구씨, 케일, 다래몽, 느릅나무, 수수떡나무, 홀잎나무, 참비듬나무, 겨우살이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특히 느릅나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번은 모두 복용하여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느릅나무는 약명으로 유백피라 하는데, 거담, 진해, 완화, 이노, 소염, 항암작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癌의 치료보다는 기사회생의 당뇨병약으로 소개되어 있었다(임중과 임근, 1991). 또한 임과 임(1991)의 저서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느릅나무, 표고버섯, 알로에, 인삼, 매실과 살구씨, 삼백초 등이 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1990)도 느릅나무를 잘 썰어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조금씩 끓여 차로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하였으나, 위암과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으나 당뇨병에는 특효약이라고 하였다.

표고버섯에 대하여 구(1990)는 숨이차고 답답할 때 울궤 내어 마시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류, 섬유질, 회분, 그리고 무기염, 칼슘, 망강, 동, 철분 등의 성분이 있어 영양가가 좋고 몸에도 좋으며, 말린 표고버섯은 항암 활동성분이 있다고 하였다.

알로에에 대하여서는 가정의 만능약, 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며, 정력, 강장제, 설사약, 멀미, 숙취에 좋으며, 화상에서 癌에 까지 좋다고 하였다(이훈, 1990). 이(1990)도 알로에는 위장병에 효과가 있고 정장작용이 강하며, 피부병, 화상, 타박상, 관절, 무좀, 치통, 피부 미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병통치약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항암작용이라고 하였다.

인삼은 항암효과, 스테미나 증강, 피로회복,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영지버섯은 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는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구본홍, 1990). 구(1990)는 근육이완 작용과 뇌의 호흡순환작용을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는 대추와 고노텔믹산, 다당류, 유기산, 만니톨, 쿠마린, 알카로이드 등의 성분이 있고 강장 진정작용이 있어 고혈압, 당뇨 등에도 쓰이고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는 영지버섯을 함께 그릇에 넣고 물을 붓고서 달여서 먹으면 좋다고 하였으나 영지버섯은 품질이 큰 문제이므로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이 영지버섯의 효과를 癌과 연관시킨 경우는 없으나 많은 환자들이 영지버섯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1990)는 매실과 살구씨를 癌과 고혈압에, 삼백초는 癌에 특효약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유방암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주위 사람의 권유에 의해, 또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民間療法을 사용하였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천지도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환자는 없었다. 즉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그 각각의 民間療法의 효과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 혹은 '癌에 좋다'고 하더라란 이야기만 듣고서도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은, 최(1978)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民間療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부분적 인정을 합하면 79.1%의 대상자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결과와는 달랐으나, 아동에게 사용되는 民間療法을 조사한 주(1994)의 보고에서 대상자가 이용하는 民間療法 중 단지 59.6%만이 그 근거가 문헌에 제시되어 있었다는 비슷한 보고도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대상자들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에 대한 구체적 확신도 없으면서 많은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은 病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어진 醫療자원 가운데 적절한 치료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만큼 癌은 유방암 환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유방암 환자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나 生命에 대한 기구를 行動으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시도되는 行動이라 설명할 수도 있겠다. 결국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生命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民間療法을 시용하게 됨으로서 천지의 정신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民間療法과 더불어 유방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환자들은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 방법으로 육류를 삼가하고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며, 과일이나 채

소류를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고 생수를 마시는 등의 행동에 크게 몰두하고 있었다. 韓國人の 健康慣行을 조사한 김(1991)은 한국인의 健康慣行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린다’, ‘과하지 않게 산다’, ‘自然 그대로 산다’, ‘서로 더불어 산다’와 ‘열심히 산다’ 등이라 하였으며, 성인의 健康信念과 健康行爲를 조사한 김(1994)은 한국의 성인이 健康을 위하여 하고 싶어하는 행동로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행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취미생활’, ‘자연식’, ‘기호식품절제’ 등을 들면서 현대 한국 성인이 행하고 있는 健康行爲는人間과 환경을 하나로 보는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을 중시하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유지하고 정서적인 조화를 꾀하는 측면을 중시하며 韓國의인 健康관인 조화, 양생을 중시함, 자연과의 합일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숯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이(1987)도 대상자들이 신체적 健康을 위하여 식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현미와 채식을 선호했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위해 육류 보다는 콩종류와 견과류를 애용하고 있었으며, 무공해식품의 사용과 규칙적인 식생활로 健康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식간에는 생수를 마신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생활에 변화를 주므로써 더욱 健康해지고 疾病을 치료,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미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하고 생수를 의도적으로 마시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인공식품은 피하며,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하며 자연적인 식생활을 중히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유방암 환자 역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자연식으로 체질을 개선하려고 하여 이는 한국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健康에 관한 信念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경로는 같은 유방암 환자들 끼리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의 가족 친지, 친구들 및 제(契)모임에서 民間療法을 소개 받기도 하고 기타 다른 환자의 방문객으로부터 혹은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되나 간호사, 의사나 한의사가 民間療法을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나 의사가 民間療法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으며,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면 民間療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지식을 넓히므로써 앞으로의 환자간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은 형태

별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그 하나는 癌을 진단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치료 후, 환자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모든 치료를 했으니 나을 것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民間療法이고, 다른 하나는 癌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 되고 난 다음 병원에서 는 디 이상의 치료가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환자가 시도하게 되는 民間療法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회복의 기대를 民間療法에 두므로 여러가지의 극히 다양한 民間療法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들이 일차적으로 癌을 진단 받으면 우선 병원을 찾게 되나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만스럽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民間療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요법으로 활용되는 숯사용에 관한 연구를 한 이(1987)의 보고에서도 환자들이 숯을 民間療法으로 사용하는 경우 먼저 現代醫療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증상이 치유되지 않거나 양약사용에서 부작용을 경험하고 現代醫療에 불만족하게 되면 대안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일부 농촌지역의 醫療방법에 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최(1978)도 상당한 정도의 醫療수요자들은 의사와 약국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漢方醫療 및 민속요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합리적 사고 속에서 傳統醫療가 現代醫療과 공존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의 반 이상의 가구에서 민속요법을 사용하였고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民間療法에 사용되는 소재는 약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現代醫療을 이용하고 차후에 民間療法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1978)의 보고에서는 건강문제 해결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 한의원이나 민속요법을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비교적 많이 이용 한다고 하였으나, 이 조사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가 가진 疾病이 죽음과 연관되는 癌이기 때문에 환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醫療行爲를 찾게 되는 심리적 표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癌이란 疾病에 대한 적응행위를 나타낸 것이라 보인다.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가 한가지 이상의 民間療法을 불규칙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民間療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民間療法의 효과에 대한 의심 및 환자 개인의 특성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발되지 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를 했으니 낫을 것이라는 믿음과

民間療法の 효과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생각되며, 재발된 유방암 환자의 경우는 이제와는 다른 치료가 없으니 民間療法이라도 의존해야 하나 그 효과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民間療法을 권하게 되므로 자연히 여러 가지 民間療法을 불규칙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民間療法은 유방암 환자의 불안감 제거와 정신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유방암 환자는 民間療法을 사용함으로써 재발의 공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환자들은 불안할 때, 병의 재발이 두려울 때, 신체적으로 健康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民間療法을 이용하여 유방암 환자가 疾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불확실한 자신의 生命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불안감을 제거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남편이나 가족, 친척들은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民間療法은 그러한 남편, 가족, 친척들의 마음의 표현이나 애정표현의 한 양식이라 볼 수 있으며 환자들은 가족들이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쁘게 되므로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癌의 진단을 받고 정신적으로 불안 공포 우울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적절히 民間療法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民間療法에 관한 사례를 종합하여 이를 일화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는 같은 유방암 환자 가족 진지 친구들로부터 유방암에 좋다고 하는 많은 民間療法들이 소개된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는 먼저 병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民間療法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유방암 환자에게는 계속적으로 民間療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癌에 대한 두려움과 재발에 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운 유방암 환자는 民間療法에 관심을 두게 되고 유방암 환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주위에서 강력하게 권하는 民間療法부터 시작하게 되나 民間療法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한 가지 종류의 民間療法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民間療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방암 환자는 이제 치료를 했으니 살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신체적으로 큰 불편도 없기 때문에 民間療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를 들은 순간 잠시 동안 民間療法을 실시해 보는 형태를 취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이 되지 않은 유방암 환자들은 조금씩 民間療法에 덜 의존하게 되나 체질개선에는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체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재발이 된 환자의 경우는 병원치료 보다는 民間療法에 크게 의존하므로 많은 民間療法을 복합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된다.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文化的 信念을 형성하고 나아가 健康信念을 갖는다면 文化的 배경에 따라 健康한 行動이나 疾病行動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人間과학에 뿌리를 둔 Man-Living-Health Model에서 Parse(1981)는 人間은 환경과 더불어 울동적인 관계 유형을 만들어 내는 상호 동시적인 단일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개방적인 존재로서의 人間은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보아 人間과 환경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환경이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져 환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간호의 목적이 疾病으로부터의 회복, 健康의 유지, 증진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통하여 돕는 활동이라면, 대상자와 간호사가 공동의 민속 文化的 개념들 안에서 형성된 文化的 信念을 근거로 하여 공동의 行動목표의 기대를 가지고 간호를 적용한다면 간호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본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을 서술하고 분석하므로써 유방암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더불어 유방암 환자의 절명판타 행위를 제시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첫째, 유방암 환자가 활용하는 民間療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둘째, 民間療法을 하게 되는 경로는 어떠한가? 셋째,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형태는 어떠한가? 넷째,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이유 및 동기는 무엇인가? 다섯째, 民間療法이 유방암 환자에게 주는 의의는 무엇인가?이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환자가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면담 및 전화면담을 통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고, 계속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여러가지 民間療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癌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民間療法의 효과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게 되는 경로는 주로 같은 유방암 환자끼리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의 가족 친척 친구 매스컴 등을 통하여 民間療法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유방암 환자가 사용하는 民間療法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그 하나는, 유방암 환자가 癌을 진단 받은 후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로 모든 치료를 했으니 나올 것이라고 믿는 상태에서 시도하는 民間療法으로 여러가지 民間療法을 이용하기는 하나 民間療法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癌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되고 난 다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환자가 시도하게 되는 民間療法으로 여러가지 民間療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民間療法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이다. 유방암 환자가 民間療法을 사용하는 이유 및 동기는 癌의 재발을 막거나 癌을 치료하기 위하여 혹은 癌의 예방에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民間療法이 유방암 환자에게 주는 의의는 民間療法이 유방암 환자의 불안감 제거와 정신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의 남편이나 가족, 친척들의 마음의 표현이나 애정의 표현의 한 양식이라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여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병원의 치료를 이용함과 동시에 民間療法도 이용한다.
-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다양한 民間療法을 사용하나 그 효과는 증명되지 않고 있다.
-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에 관한 정보교환에는 환자 자신들, 가족, 친지, 친구, 매스컴 등 모든 사회 정보체계가 이용되었다.
- 民間療法의 이용은 癌환자에게 마음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韓國의 질병관리 行爲이다.
- 民間療法은 환자의 癌 재발에 대한 불안감 제거 뿐만 아니라 가족상호간의 애정표시로 이용되었다.
- 民間療法은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거나 치료의 희망이 없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疾病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응 行爲이다.

제 언

다른 종류의 癌을 가진 환자 및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民間療法에 대하여 계속 연구함으로써 한국인의 民間療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疾病管理 行爲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홍(1990). 민간요법을 찾습니다. 서울:영상세계
- 김귀분(1990). 韓國人の 健康價行에 對한 民俗科學的 接近, 이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도임(1985). “우리나라 일차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역할에 관한 연찬”. 섬악파크호텔, 61-81.
- 김성례(1978). 한국농촌의 전통의료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인류학논집, 4, 3-57.
- 김애경(1994). 성인의 건강개념과 건강행위에 대한 서술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1), 70-84.
- 다케노우치마사오(1990). 손바닥자극 민간요법. 한국생활건강연구회편역, 서울:태웅출판.
- 대한약전(1986). 5개정판, 시단법인 대한보전공정서학회, 326-327.
- 문화방송(1987). 한국민간의료법대전. 서울:금박출판사.
- 박봉주, 정성숙(1988). 전통적 가정 간호에 대한 기초연구.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논문집, 11(1), 87-109.
-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宋達玉(1974). 一部 農村地域의 民俗醫療利用에 關한 調査. 공중보건잡지, 11(1), 25-37.
- 오미정(1994). 漢方看護의 問題點에 따른 探索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순(1987). 民間療法으로 활용되는 藥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덕균(1989). 민간요법. 서울:을지출판사.
- 이희승(1989). 民衆 藥學 國語辭典. 서울:민중서림.
- 이 훈(1990). 민간요법. 서울:자유시대사.
- 임중, 임근(1991). 민간요법 건강학. 서울:일월서각.

- 조각출(1984). 한국의 전통적 가정간호에 관한 탐색적 연구—아동에게 투입되는 민속요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갑술(1985). 한국의 전통적 가정간호에 관한 탐색적연구 : 경상북도 일부 농촌지역의 민속요법을 중심으로.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7권, 81-203.
- 趙和淑(1965). 일부지역의 傷病과 民俗醫藥에 關한 調査研究. 최신의학, 8(8), 95-103.
- 주현옥(1994). 아동에게 사용되는 민간요법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명희(1994). 유방암 환자 삶의 과정적 변화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현숙(1988). 일부 도시주민의 건강개념, 건강행위,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 10권, 145-174.
- 정복례(1991). 유방암 환자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韓明烈, 金淳河, 許程(1964). 우리나라 一部農村地域의 民俗醫藥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의대잡지, 5(3), 193-201.
- 최남희(1978). 일부 농촌지역의 의료방법에 관한 인식 및 이용실태. 간호학회지, 8(2), 25-37.
- Powers, B.A.(1982). The use of orthodox and black American folk medicine. Advanced in Nursing Science, 4(3), 35-47.
- Kulbok, P.A., & Baldwin, J.H.(1992). From preventive health behavior to health promotion : Advancing a positive construct of health. Adv Nurs Sci, 14(4), 50-64.
- Leining, M.(1987).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s. New York, Chichester, Brisbane, Toronto : John Wiley & Sons.
- Martinez, C., & Martin, H.W.(1966). Folk Disease Among Urban Maxican Americans. IAMA. 196(2), 147-151.
- Mckenzie, J.L., & Chrisman, N.J.(1977). Healing Herbs, Gods, and Magic : Folk Health Beliefs Among Filipino-Americans. Nursing Outlook, 25(5), 326-329.
- Parse, R.R.(1981). Man-Living-Health :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 A Wiley Medical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Abstract -

Folk Remedies used by Patients with Breast Cancer

Park, Jin Mee* · Chung, Bok Ya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folk remedies used by patients with breast cancer becaus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subject, even though many Korean women with breast cancer have used folk remedies during and after their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describe the phenomena and the meaning of folk remedie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comprehensive nursing care.

The Questions for the study were as follows : What kinds of folk remedies do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se? What are the routes of knowing about folk remedie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What are the patterns of the usage of the folk remedies? Why do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se folk remedies? What are the meanings of folk remedies to patients with breast cancer?

To answer these question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Thirty-nine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university teaching hospitals from March, 1993 to November 1994. Many of them underwent either modified radical mastectomy or received various adjuvant therapy including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and hormonal therapy.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s, medical records, and analyzed step-by-step using qualitativ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Patients with breast cancer have used many different kinds of folk remedies.

* Taegu Fatima Hospital

**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 Patients with breast cancer did not know the exact effects of the folk remedies. Also the effects could not be exactly proven by the patients.
3.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ed information about many kinds of folk remedies through various communication systems, such as other patients,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friends, and many types of mass media.
4. To use the folk remedies was one kind of illness behavior that was used by these patients.
5. Folk remedies were used to deal with not only anxiety by the patients themselves but also as

the expression of affection and concern by families and relatives.

6. The use of folk remedies was one of the adaptation behaviors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whose disease was in the terminal stag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one suggestion was made : To continue further studies on folk remedies used by other patients with cancer in order to further explain health and illness behavior of Korean people.